

# 행동의 끝과 말씀의 시작 : 《베오울프》에 나타난 이념과 담론

이 정 호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 I. 말을 시작하며

영문학은 《베오울프》(*Beowulf*)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보면 이 시는 영문학의 시조이다. 그러나 이 시의 중요성은 그것이 “영어로 씌여진 위대한 장시(長詩)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sup>1)</sup>이라는 역사적 가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시는 이러한 고시로서의 가치 이외에도 문학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더욱 귀중한 자료이다. 더구나 이 시가 1731년에 일어난 화재에서 구출되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을 소실할뻔 했다(이 화재는 로버트 브루스 코튼 경[Sir Robert Bruce Cotton (1571~1631)]이 소유하고 있던 귀중한 중세 문학의 자료들이 소장돼 있던 런던의 한 건물에서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이 시의 몇 줄이 소실됐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이 시가 역사적으로 영시의 최초 최대의 시라거나 또는 문화적으로 귀중한 자료라거나 하는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다. 이 시는 톨킨(J.R.R. Tolkien)이 1936년에 이 시가 시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그의 “《베오울프》: 괴물과 비평가”(*Beowulf: the Monsters and Critics*)라는 논문에서 최초로 지적한 이래로 영문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그 결과 이 시에 대한 다양한 읽기와 해석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시를 새롭게 읽을 시점에 와 있다. 이 시를 새롭게 읽어야 할 필요성은 이 시가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어느 하나의 접근으로 모두 다 담아낼 수 없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우리가 문학 작품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사실이 더 큰 이유가 될 것이다. 우선 이 시의 생성과정 자체가 우리의 흥미를 자극한다.

이 시는 고대영어로 씌여진 시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인의 역사적 사실을 다루지 않는다.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은 5세기 후반이나 6세기 초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단지 추정일뿐 확실한 증거는 없다.<sup>2)</sup> 이 시의 무대는 북구(北歐)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구전(口傳)으로 전해 내려 오다가 몇 세기 후에 영국의 시인이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은 시를 서기 1000년 경에 수서생(手書生, scribe)들의 수서에 의해 수서본(manuscript)으

1) M.H. Abrams, ed.,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New York: W.W. Norton, 1986), 5th ed., Vol. I, p. 25.

2) 해롤드 블룸(Harold Bloom)은 *Beowulf*의 제작연도를 서기 650~800 사이로 보고 있다. *Beowulf* (New York Chelsea House, 1987)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p. 131.

로 보관하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베오울프》는 이렇게 작성되어 전해오는 수서본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8세기 초까지에는 전 영국이 기독교화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 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즉, 이 시의 시대적 배경과 무대는 기독교화되기 전의 이교도 시대이다. 그런데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기독교인이다. 이교(異敎)와 기독교는 서로 다른 패러다임(paradigm)을 가지고 있는 이질적인 두 개의 다른 체제이다. 여기에 바로 이 시의 중요성이 있다.

이 시는 다른 어떤 영문학 작품과도 달리 유일하게 이교도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시이다. 그런데 이를 보는 시각은 기독교적인 시각이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체제가 이 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라는 질문은 어느 영문학 작품에서보다도 더 큰 중요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흥미있는 대답을 제공한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흥미있는 사실에 대한 질문이며 이에 대한 필자의 대답으로 시도된 것이다.

## Ⅱ. 《베오울프》에 나타난 이중적 시각과 지배 이념

《베오울프》를 쓴 시인은 현대의 어느 작가 못지 않게 힘든 작업을 그의 시에서 해내고 있다. 이런 힘든 일은 바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념 체제를 어떻게 증재하느냐 하는 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힘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베오울프》시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능숙하게 자신의 일을 완수한다. 여기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새 흔히 쓰는 좁은 의미의 것이기보다는 넓은 의미로서의 이념이다. 이런 넓은 의미에서의 이념을 캐더린 벨지(Catherine Belsey)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념은] 대중의 생활 방식, 그리고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들과 생존조건과의 관계를 모두 통틀어서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념은 [대중의] 의미화행위 속에 각인되어진 것이다. 즉, 이념은 담론이나 신화 그리고 사물의 존재 방식과 이를 서술하는 방식 속에 내재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념은 언어속에 각인돼 있다.

[Ideology is] the sum of the ways in which people both live and represent to themselves their relationship to the conditions of their existence. Ideology is *inscribed in signifying practices*—in discourses, myths, presentations and representations of the way “things” “are”—and to this extent it is inscribed in the language.<sup>3)</sup>

이렇게 볼 때 《베오울프》시인은 두 개의 서로 상충되는 이념을 증재해야 하는 임무를 이 시에서 떠맡은 셈이다. 그는 기독교화된 영국에 사는 시인이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이 시대의 영국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역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였다. 기독교는 자신의 교리로 야만스럽고 이교도적인 당시의 유럽을 교화하고 통일하는 유일무

3) Catherine Belsey, *Critical Practice* (London: Methuen, 1980), p. 42.

이의 지배이념으로서 이러한 기독교 이데올로기는 유럽인과 영국인들의 생활과 규범에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베오울프로 대표되는 이교도의 이념은 이러한 기독교의 이념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교도들은 아직 기독교화가 되지 않은 무지 몽매한 시대에 구원의 빛을 받지 못 하고 살던 불쌍한 야만인들이었다. 이런 이교도들의 행동이 아무리 용맹스럽고 위대하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말씀(logos)에 비추어 볼 때 아주 가소롭고 측은하게까지 여겨졌다. 이 경우 시인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는가? 우선, 기독교의 입장에서 이교도였던 조상들을 매도한다면 이는 시인 자신의 뿌리를 매도하는 것이 된다. 로마의 프로바(Proba)나 룩소리우스(Luxorius) 또는 폼포니우스(Pomponius)가 버질(Virgil), 호라스(Horace), 오비드(Ovid)의 시들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개작했다.<sup>4)</sup> 그러나 《베오울프》시인은 조상의 전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전적으로 개작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그에게 남은 방법은 무엇인가? 그는 이교도나 기독교도 양쪽 모두에게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의 얘기를 끌어갈 수 있는 담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즉, 베오울프의 얘기가 이교도들에게는 그의 영웅적인 무용담으로 들리면서도 동시에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가 훌륭한 인물로 묘사되는 서술 방법을 찾는 일이다. 이 시의 작자가 바로 이런 작업을 《베오울프》에서 해냈다는 의미에서 이 시인은 우리의 주목에 값한다. 그는 어떻게 이런 작업을 해내고 있는가? 그는 하나의 단어속에 이교도적인 의미와 기독교적인 의미가 함께 들어 있는 어휘를 골라 씌으로써 어휘 차원에서 이중적 시각을 가능하게 했다. 이처럼 하나의 단어에 두 가지의 다른 의미가 포함되게 된 것은 캐드먼(Caedmon)의 작업에 힘입은 것이다. 캐드먼은 그의 시에서 앵글로 색슨의 토속어를 기독교 용어로 차용함으로써 하나의 어휘에 캐드먼이전의 의미와 캐드먼 이후의 의미가 포함되게 했다. 이를 동격화된 단어 또는 동격어(同格語, appositive word)<sup>5)</sup>라고 부른다. 이러한 예들은 《베오울프》에서 무수히 나타나는데 그 중 대표적인 몇 개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이교도적인 의미와 기독교적인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는 대표적인 예는 괴물(monster)이라는 의미가 있는 다음 몇 개의 단어들에서 볼 수 있다. 즉 *eotenas*[giants], *fifelcynn* [monster race], *scinnan*[phantoms], *scynscaþan*[demonic foes], *scuccan*[evil spirits], *ylfe* [goblins] 등이 그 예들이다. 이 단어들은 이교도들이 괴물을 지칭할 때 쓰던 용어들이다. 그러므로 이 시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런 용어들을 쓸 경우에 이들은 이교도적인 의미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된다. 이런 괴물의 무리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가 곧 그렌델(Grendel)과 같은 괴물들이다. 그러나 이 시의 저자는 이 괴물들이 카인(Cain)의 후예라고 말함으로써

4) Fred C. Robinson, "Apposed Word Meanings and Religious Perspectives," in *Beowulf*, Bloom, ed., p. 100.

5) Robinson(1987), p. 82.

이들은 어느 새 기독교—특히 구약—의 악마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베오울프가 그렌델과 싸울 때 그는 기독교화되기전의 괴물과 싸우는 것이 되며 동시에 기독교의 악마와 싸우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그렌델은 신의 적(786, 1682)이며 지옥의 하인(788, 1274)이고 또한 악마의 무리(756)가 되며 신과 대항해서 싸우는 자(711, 811)가 된다. 이러한 기독교적인 의미를 이 시의 청자(audience)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시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중의 하나인 호로드가르 왕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1355~1357). 이처럼 동격어는 토착어가 이교도적인 의미와 기독교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짐으로써 이중적 시각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동격어 속에 담겨있는 기독교적인 의미가 이교도적인 의미를 대체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예는 특히 신(神) 또는, 높은 존재를 의미하는 어휘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 기독교 용어인 그리스도(Christ), 성령, 삼위일체 같은 어휘는 이 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더구나 그 당시에 유행하던 신(神)의 지칭법도 이 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당시에는 명사에 천사의 복수 소유격인 *engla*[of angels]을 붙임으로써 기독교의 신을 나타냈다. 예를 들면 신을 지칭하는 말로 “천사들의 왕”(engla cyning [king of angels])이라든가 “천사들의 수호자”(helm engla [protector of angels]),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왕”(heofonengla cyning[king of the angels of heaven]) 등이 쓰였으나 《베오울프》에서는 이런 단어들도 전혀 없다. 대신 이 시에서는 신을 가리키는 말을 토착어에서 골라쓰고 있다. 예를 들면 “백성의 지배자”(ylða waldend[ruler of men])(1661), “승리의 지배자”(sigora waldend[ruler of victories])(2875) 등이 그 좋은 예들이다. 특히 다른 고대 영시에서는 기독교의 신을 나타내는 *milde*라는 호칭이 자주 쓰이고 있으나, 《베오울프》에는 이 용어가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sup>6)</sup> 대신 이 시의 시인은 다음과 같은 어휘를 씀으로써 이중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이들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alwealde[all-wielder]), “주인”(frea[lord]), “창조자”(metod[creator]), “승리의 지배자”(sigora waldend[ruler of victories]) 등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격어의 경우에도 그 의미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좋은 예가 *dryhten*이라는 용어의 경우이다. 프레드 C. 로빈슨(Fred C. Robinson)에 따르면 이 용어는 《베오울프》에서 모두 29회나 쓰였다. 이 중 15회는 이 시에 나오는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고 나머지 14회는 신을 지칭하는 경우이다.<sup>7)</sup> 예를 들면 다음의 예는 *dryhten*이 작중인물을 가리키는 경우이다.

[위그라프는] 그의 위대한 주인이 피흘리는 것을 보았다.

[wiglaf] dryhten sinne driorigne fand

6) Robihson(1987), p. 94.

7) Robinson(1987), p. 89.

[[wiglaf] found his lord bleeding]  
(2789)<sup>8)</sup>

앵글로 색슨 말로 운명(fate)을 의미하는 단어인 *wyrd*의 경우는 이러한 예를 잘 보여준다. 이 말은 셰익스피어가 《맥베드》(*Macbeth*)에서 “weird sisters”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 말의 어원이 드러난다. 이 경우 weird는 *wyrd*에서 나온 말로 “weird sisters”는 곧 “운명의 자매”(sisters of fate)라는 의미이다.<sup>9)</sup> 이처럼 운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wyrd*가 기독교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신의 섭리의 실현”<sup>10)</sup>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wyrd*가 의미하는 운명은 곧 신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있어 *wyrd*는 냉혹하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이 시의 저자와 이 시의 청자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단어를 이해한다. 이들에게 *wyrd*는 곧 신의 뜻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를 베오울프의 말에서 보기로 하자. 그는 용과의 싸움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의 지배자이신 운명이 우리 두 사람에게 정해주신 대로”(2526~27)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운명은 *wyrd*의 번역이고, *wyrd*는 다음에 오는 *metod*와 동격이다. *metod*는 “모든 사람들의 지배자”(the measurer of each man)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metod*는 이교도인 작중 인물들에게는 운명의 주재자로 받아들여지지만 기독교인인 이 시의 저자와 청자에게는 신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베오울프는 자기 식으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어 용과의 전투 결과는 운명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도인 저자와 그의 청자는 그가 기독교적으로 말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그는 결과적으로 신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동격어는 이 시에서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특히 선물을 의미하는 *gife*(gift)라는 단어는 우리의 주목을 요한다. 로빈슨(Fred C. Robinson)은 베오울프가 살던 기독교 이전의 사회는 수치문화(shame culture)가 지배하던 사회로서 이는 기독교 사회가 죄의식 문화(guilt culture)인 것과 대조된다고 말한다.<sup>11)</sup> 수치 문화에서는 선물은 순수한 것이며, 선물 자체에 가치가 있을뿐 그것의 소유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따라서 신하와 왕 사이에 자주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이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며 또한 깊은 충성심과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베오울프는 그가 받은 선물을 다시 자신의 신하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선물이 사유물이 아니고 공유물(共有物)임을 보여준다. 선물은 단지 주고 받는 것 자체에만 그 의미가 있을 뿐이고, 그것의 물질적 가치를 베오울

8) Howell D. Chickering, Jr., *Beowulf: A Dual-Language Edition*(Garden City, New York: Anchor Books, 1977), pp. 216-217. 이 논문에서의 인용은 위의 책에서 하겠으며, 이후로는 행수(行數)만을 본문에 표기함. 한국어 번역은 김저산, 《베오울프외》(서울: 탐구당, 1978)을 참조함.

9) Fred C. Robinson, “History, Religion, Culture,” in *Approaches to Teaching Beowulf*, Jess B. Bessinger, Jr. and Robert F. Yeager, eds. (New York: MLA, 1984), p. 121.

10) Robinson(1984), p. 121.

11) Robinson(1984), p. 120.

프는 계산하거나 이를 사유물로 여기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선물을 많이 받는 것은 수치문화에서는 명성을 유지하는 방식임으로 여기에는 의식이 따르게 마련이었다. 이처럼 순수하게 얻어진 선물은 곧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다. 예를 들면 베오울프는 웨알데오우 왕비(Queen Wealhtheow)로부터 훌륭한 목걸이(torque)를 선물로 받는다(1160~1231). 그러나 베오울프가 자기 고향인 예이트랜드(Geatland)에 돌아와서 이를 히엘락왕비(Hygelac's Queen)에게 다시 줌으로써 그의 충성을 나타낸다. 반면 악왕(惡王)의 전형으로 소개되는 헤레모드(Heremod)는 병적일 정도로 인색하다. 그러므로 그의 불행은 선물을 나누지 않는 그의 인색함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이 경우 영어의 불행이라는 단어인 misery는 구두쇠라는 miser에서 나왔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sup>12)</sup> 베오울프의 죽음을 초래한 용과의 싸움도 사실은 선물의 의미에서 찾아질 수 있다. 베오울프는 선물을 사유재산으로 여기지 않고 신하들과 나뉘어 가지는 인물이다. 그러나 용은 그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낚과 공유하지 않고 독점한다. 그러자 용이 지키고 있던 보물 중의 하나인 술잔을 도난 당한다. 이에 화가 난 용은 온 나라에 불을 지르고 베오울프는 그의 고향에 있는 그의 어좌(throne)까지도 이 불에 탔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 이에 자유롭게 선물하는 베오울프와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보물을 독점하는 용 사이에 숙명적인 대결이 있게 된다. 이처럼 선물은 베오울프가 살던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선물은 순수하고 꾸밈없는 공유이며 나눔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gife*라는 단어가 신의 은혜(grace)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게 된다. 이러한 예는 베오울프가 어떻게 해서 그렌델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됐나를 묘사하는 데에서 나온다.

베오울프는 자기의 큰 힘

(즉)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관대한 선물을 잊지 않았다.

he gemunde maegenes strenge,

gimfaeste gife, ðe him god sealde

[He remembered the power of his strength,

The ample strength that (a) god had bestowed on him]

(1270-71)

동격어는 어휘의 수준의 것이다. 그러나 문장에서 이러한 어휘를 사용하여 《베오울프》시인은 그의 묘사에 있어 베오울프가 살던 시대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가치관을 동시에 보여 줌으로써 이중적 시각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호로드가르 왕의 충고”(Hrothgar's sermon) (1700~1784)라고 불리우는 부분에서 볼 수 있다. 호로드가르는 여기서 과거를 거울삼아 헤레모드처럼 독점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 것을 베오울프에게 충고한다. 헤레모드는 명예의 금고리 선물을 덴마크인들에게 주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투쟁의 고통과 영원한 쓰라림을 겪고 쓸쓸하게 살아야만 했음을 호로드가르는 말한다

12) Robinson(1984), p. 120.

(1719~1721). 그가 이처럼 불행하게 된 것은 그의 지나친 자만심과 탐욕 그리고 불같은 성미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면서 호로드가르는 베오울프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유명한 용사여 거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오! 지금 그대의 힘은 일시적이니라”(1761~1762). 이는 기독교화 되기 전의 게르만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을 말해주는 것이다. 호로드가르는 그의 충고에서 지도자의 통솔력과 명예, 선물, 그리고 그가 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 그리고 운명의 변덕스러움에 대해 들려준다. 특히 호로드가르는 지도자가 가져야 할 태도 중에서 특히 자신의 부하에게 후히 선물해야 할 의무를 들려 준다. 이러한 덕목들은 이 시의 청자에게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일곱 가지 죄의 근본(七罪宗, the Seven Deadly Sins)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아직 기독교로 개종되기 전 시대에 살던 호로드가르나 베오울프가 기독교의 이런 교리를 알리가 없다. 더구나 호로드가르는 이러한 충고를 하면서 노아의 대홍수(the Deluge)가 새겨진 그의 칼자루를 그윽히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시적 장치는 이 시의 저자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호로드가르는 노아의 대홍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인물이지만, 이 시를 듣는 사람들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다. 시인은 호로드가르의 충고에서 이교도의 가치관이 기독교의 가치관과 합쳐져 있음을 보여 주려 한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시각은 《베오울프》가 하나의 이념체계를 여과없이 반영하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이념에 의하여 굴절된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이념의 체계를 조작해 보여주는 작품임을 알 수 있게 한다.

### Ⅲ. 이념의 덧씌우기로서의 담론

그렇다면 《베오울프》를 쓴 시인은 왜 사실을 이처럼 왜곡시켜 가면서까지 무리한 서술을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은 바로 《베오울프》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베오울프》는 영웅의 위대한 업적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씌여진 것이 아니다. 영웅의 찬양시로서의 《베오울프》의 음조는 음산하기까지 하다. 로빈슨은 이 시의 음조는 “경탄과 회한이 섞여 있는 복합적이고 감동적”(complex and moving tone of mingled admiration and regret)<sup>13)</sup>인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경탄과 회한의 복합적인 요소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러한 요소는 곧 기독교적 이념이 이 시의 기록(탄생)에 관여했다는 사실에서 찾아질 수 있다. 베오울프는 후대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위대한 선조임에 틀림없으나, 기독교의 교리에 비취볼 때 그는 길 잃은 영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시선은 후대인들이 베오울프를 영웅으로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연민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이유가 된다. 기독교인들의 눈으로 볼 때 베오울프의 영웅적인 행동은 목적없는 행동에 지나

13) Robinson(1987), p. 92.

지 않을 뿐이며, 목적이 없는 행동이 아무리 위대하고 영웅적이라 해도 그것은 찬양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마치 마피아 단원의 행동이 자신의 범죄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위대하고 용기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정반대의 경우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다면 마피아 단원에게 구제 방법은 없을까? 그가 구제받기 위해서는 그가 하는 행동의 용감성이나 위대성의 문제에서 떠나 그가 어느만큼의 정의감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정의감은 마피아 조직의 것이 아닌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검토돼야 할 문제이다. 즉, 그는 양심의 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 범죄 집단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주저 앉아 있었다는 등의 변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변명을 보다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경감하기 위하여 남이 모르게 누구를 도와주었다든지 또는 비밀히 신에게 사죄하며 기도했다는 등의 요소들이 가미될 수 있다.

이러한 마피아 단원의 예는 그러나 논리적으로 베오울프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베오울프는 기독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인물인데 반하여, 필자가 예로 든 마피아 단원은 기독교의 정의가 사회정의로 수용된 시대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베오울프》 시인은 기독교이념에 의하여 이 시를 써야 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등의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측면이다. 이 경우 담론은 이데올로기의 시녀로 작용하여 사실을 굴절시키고 억압하는 역할을 한다. 더구나 이 시의 청자는 기독교화된 베오울프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러한 굴절은 더욱 더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잠시 담론(discourse)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기로 하자. 왜 담론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는 것이 더 타당한가라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 있다. 담론은 규칙이 정해지고 난후에 그 작용이 연역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펴본 후에 우리는 그것의 작용 범위를 알 수 있는 무엇이다. 이는 언어학에서 말하는 심층적이고 추상적 체계로서의 랑그(*langue*)가 아니고 구체적이고 표면적인 빠롤(*parole*)의 측면을 담론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담론은 그러므로 말하는 방법의 문제이며, 이러한 말하기의 방법은 이념과 직업, 정치, 문화 그리고 사회적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sup>14)</sup>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베오울프》의 담론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시는 영문학사에서 아주 특이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이념에 의하여 결정지워진 담론방법이 《베오울프》라는 시에서는 어떤 것이 어떤 식으로 말하여질 수 있으며 또한 어떤 것이 말해져서는 안되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론의 작용이 우리에게 쉽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담론의 결과만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이것 속에서 이념의 힘을 찾아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에서 이교도들의 사고 방식과 생활 양태를 만난다기 보다는 기

14) C. Hugh Holman and William Harmon, *A Handbook to Literature*, 6th ed., (New York: Macmillan, 1992), p. 143.



독교의 이념에 의하여 재단된 담론으로 요리된 이교도들의 삶의 단편만을, 그것도 굴절된 시각으로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이 시에서 중요한 것은 베오울프의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그것이 기독교의 이념을 투과하여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다.

행동에는 말이 필요없다. 베오울프의 행동은 더구나 전설로만 남아서 음유시인(scop)들에 의하여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일 뿐이다. 그것이 하나의 힘을 갖게 된 것은 기록으로 남아서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보존됨으로써이다. 그러므로 기록으로 남겨진 《베오울프》는 행동이 끝나고 나서 문자로 표기됨으로써만 그 가치가 있다. 이는 행동의 가치는 행동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어떤 담론에 의하여 보존되고 유지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담론은 이교도의 담론이 아니고 기독교의 담론이며, 그러므로 베오울프의 이야기는 이념과 담론의 굴절과 왜곡 그리고 배제와 첨가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우리가 이 시에서 이교도들의 실제적인 생활방식을 있는 그대로 안다는 것은 그러므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단지 기독교의 이념으로 얼룩지워진 담론을 통과해서 나오는 이교도의 사고 방식과 생활 태도의 조각들만을 이 시에서 만나게 될 뿐이다. 이는 기독교의 지배 담론에 의한 이교도 담론의 억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배 담론인 기독교가 이 시에서 어떻게 주변 담론을 억압하는가를 몇 가지 예에서 보기로 하자. 주변 담론의 하나의 예로 우리는 여성의 담론을 들 수 있다. 이 시에 나오는 대표적인 여성으로 웨알데오우(Wealththeow)와 그렌델의 어미를 들 수 있다. 웨알데오우는 덴마크의 왕 호로드가르의 왕비이다. 그녀는 왕비로서의 지위에 합당한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 이는 이교도적인 영웅 시대가 기독교 시대나 마찬가지로 가부장제도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가부장 제도에서는 여성은 어디까지나 남성의 보조적인 위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웨알데오우는 연회석에서 술잔을 돌리거나 선물을 주는 등의 의식(儀式)에서 장식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다. 한편 그렌델의 어미는 그녀의 모성과 용맹성으로 해서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녀의 특성은 따지고 보면 모두 기독교적인 가부장제의 담론의 산물이다. 웨알데오우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에 반하여 그렌델의 어미는 오직 아들의 이름에 의해서만 그녀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존재가 대단히 미미한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웨알데오우가 착한 어머니(Good Mother)의 원형(archetype)인데 반하여 그렌델의 어미는 악한 어머니(Bad Mother)의 원형으로 그려져 있다. 더구나 그렌델 모자가 카인의 후예로 묘사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은 지배 담론이 억압해야 할 대상인 타자(他者)로서의 주변 담론임을 알 수 있다. 그렌델이 베오울프에 의하여 팔을 잃고 달아 난 후 그의 어미가 밤에 나타나 그렌델의 팔을 가져갔을 뿐더러 호로드가르의 신하인 애시헤레(Aeschere)를 잡아갔다. 이에 베오울프는 호수 밑에 있는 그렌델의 거처를 습격한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그렌델의 거처의 묘사이다. 그렌델 모자가 사는 곳으로 가는 길의 묘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의 묘사와 흡사하다는 점이다.

그들[그렌델 모자]은 남모르는 땅, 늑대들의 은신처, 바람센 해안의 갑(岬), 위험한 늪길에서 살고 있으며, 그 곳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폭포가 어두운 낭떠러지 밑에 떨어져서 그 물이 땅 밑으로 흐르오. 그 호수는 몇 마일 안 되는 곳에 있소. 서리로 덮힌 숲이 그 호숫가에 기울어져 있고, 뿌리 깊은 나무들이 그곳을 가리웠소. (1357-1364)

칙커링(Howell D. Chickering, Jr.)은 여기에 나오는 묘사는 버질(Virgil)의 《아에네이스》(*Aeneid*), VI, 237-42에 나오는 안개 낀 검은 호수와 그 곁에 있는 깊은 계곡의 그것과 흡사하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그렌델의 거처에 대한 묘사는 10세기에 씌여진 《블릭클링 설교집》(*Blickling Homilies*)에 나오는 지옥의 환영과 아주 비슷하다고 말한다. 이 설교집에도 계곡 밑으로 흘러 떨어지는 물과 서리 덮힌 숲, 그리고 거기에 사는 늑대의 묘사가 나온다.<sup>15)</sup> 이는 《베오울프》가 기독교의 담론으로 각색된 이교도적인 요소들로 된 시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렌델은 이교도들이 생각하던 다음과 같은 괴물들의 무리에 속한다. 이들은 “거인들”(eotenas[giants]), “괴물의 족속”(fifelcynn[monster race]), “유령”(scinnan[phantoms]), “악마적인적”(scynscalpan[demonic foes]), “악령”(scuccan[evil spirits]), “악귀”(ylfe[goblins]) 등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적으로서의 악령이 아니라 단지 못된 악귀일 뿐이었다. 호르드가르도 그렌델의 조상이 누구였는지를 알지 못 한다고 말함으로써(1355~1357) 그가 단지 나쁜 괴물이었음을 시사한다. 더구나 그렌델과 그의 어머니는 신의 적대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베오울프》의 저자는 그렌델 모자에게 “신의 원수”(786, 1682), “악마의 일당”(756), “하느님과 싸우는자”(711, 811), “지옥의 하인”(788, 1274)이라는 표현을 쓸 뿐만 아니라 이들을 카인의 후예라고 말함으로써 이들이 신의 적대자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그가 쓰는 *orcneas*라는 말은 라틴어의 “지옥의 악귀”(infernal demon)라는 뜻과 게르만어의 걸어다니는 시체라는 말의 의미를 복합한 것으로<sup>16)</sup> 이러한 어휘를 씌움으로서 그가 표방하는 기독교적인 담론의 폭압성을 의도적으로 흐려 놓으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인의 시도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려는 것과 같이 대단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그가 이런 방법으로 이 시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은 가능하면 게르만어의 어원을 살리면서 동시에 이 시의 기독교 청자에게는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그의 의도를 담론적으로 수행하는 것일 뿐이다.

#### IV. 행동의 끝과 말씀의 시작 그리고 여담으로서의 담론

《베오울프》에 대한 비평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실은 이 시에는 여담(digression)이 많다는 사실이다. 레이몬드 P. 트립 II세(Raymond P. Tripp, Jr.)는 “이 시 전체가 하나의 여

15) Howell D. Chickering, Jr., p. 334.

16) Robinson(1987), p. 82.

담이다”(the entire poem is a digression)<sup>17)</sup>라고 말함으로써 이 시에 나타난 여담의 편재성(遍在性)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에서 여담이 어떤 이유로 이처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트립의 지적대로 이 시 전체가 여담이라는 주장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물론 트립은 이 시에서는 이야기의 흐름과는 상관없는 여담이 자주 그리고 수없이 나온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으나, 사실 《베오울프》가 하나의 여담이라고 봐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큰 이야기(big story)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가 어디에서 언제 태어났으며, 그가 죽기전 약 3년동안 무슨 일을 했으며(그의 어린 시절과 성장기의 이야기가 정전인 《신약》에 없는 것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으며,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하늘로 승천했다는 이야기는 예수 개인에 대한 이야기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큰 이야기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떤 개인이 어떻게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구원에 이르게 됐는가 하는 내용을 다룬 이야기가 또 다른 큰 이야기가 될 수는 있으나 《신약》에 나온 이야기에 비취 볼 때 그 정도가 약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존 버넌(John Bunyan)의 《천로 역정》(*The Pilgrim's Progress*)는 이러한 큰 이야기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베오울프는 이런 이야기들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앵글로 색슨족이 기독교화되기 이전의 하나의 이교도 영웅인 베오울프라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기독교의 진리를 나름대로 찾아 나선 사람이거나, 혹은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생활을 한 인물도 아니다. 그는 그저 이교도의 영웅이었는데 그가 죽고난 후 구적으로 전해 내려 오는 그의 이야기를 기독교도인 시인이 기록으로 남겨 놓은 것 뿐이다. 그의 삶에서 기독교적인 요소가 발견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이 시의 저자의 노력에 힘입은 것일뿐, 그것은 베오울프 자신의 삶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베오울프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에 말로 전해진 것이며, 이 〈말〉을 기독교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닌 이교도의 〈말〉이었다. 이 경우 이교도의 말은 큰 이야기인 말씀에 의하여 조작되고 각색되는 운명을 맞은 셈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은 곧 로고스(logos)이다. 로고스는 진리의 말씀이고 또한 구원의 말씀이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기술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음을 역설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한복음 1:1-3).

17) Raymond P. Tripp, Jr., “Digressive Revaluation(s), in *Beowulf*, ed., Harold Bloom, p. 67. 인용중 이탤릭은 원문대로 임.

이처럼 분명한 말쑤에 대한 언급에 비춰 볼 때 이교도인 베오울프와 이 시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인물은 단지 여담으로서의 존재 이외에는 가치가 없다. 베오울프는 물론 그렌델 모자와 싸웠고, 용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잃게 까지 되었으나 그가 기독교의 신을 위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단지 여담일뿐 큰 이야기일 수가 없다. 이에 이 시의 저자는 자신의 말을 말쑤에 맞추어 각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베오울프와 그가 맞서 싸운 적(그렌델 모자, 용)은 양자 모두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의 저자는 영겁의 지옥(183-88)에 대해 말하고, 그렌델의 조상에 대해 기술하며(104-14, 1258-67), 구약에 나오는 대홍수에 대한 묘사를 함으로써(114, 1689-91) 기독교적인 요소를 이 시에 가미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적인 요소는 신기하게도 구약적인 내용일뿐 거기에는 신약의 내용이 없다. 이는 저자가 이교도 사회에서 발견되는 요소들이 구약적인 요소들과 공통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런식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구약에 있지 않고 예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의하여 완성된 신약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 시의 저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묘사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이 시의 처음은 여담으로 시작된다. 이처럼 여담으로 시작되는 이 시의 처음은 이 시의 처음일 뿐만 아니라 영문학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런 여담은 기독교가 영국인의 신앙이 된 뒤에는 찾아 볼 수 없게 됐다는 측면에서도 재미있는 대조를 보여 준다.

들을지어다! 우리들은 태고(太古)에 덴마크인들의 위대한 왕들의 영화와 그들 군주들이 얼마나 용맹스럽게 싸웠는가를 들었노라(1~3).

이처럼 시작되는 이 시의 처음은 음유시인이 읊는 이야기의 처음이다. 여기서는 기독교화된 후의 서사시(epic)에서 보이는 것처럼 시인이 신에게 영감을 기원하거나 또는 시의 여신(女神)에게 시상(詩想)을 간구하지도 않는다. 이같은 시작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담일 수 밖에 없다. 음유시인(scop)은 이어서 덴마크의 개국 원조인 실드 세핑(Scyld Scefing)과 그의 왕가에 대해 읊는다. 이는 기독교와는 관계 없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역사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러나 실드 세핑은 호르드가르의 조상이며, 또한 실드 세핑의 후손 중에는 이 시의 주인공인 베오울프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도 있었다.

이 시는 베오울프와 그렌델 모자와의 싸움, 그리고 화룡(火龍)과의 싸움이 기본틀이다. 그러나 베오울프와 그렌델과의 처음 싸움만으로 이 시의 주제가 드러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그 후의 두번에 걸친 싸움은 첫번째 싸움의 반복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시는 기본 주제에 있어서도 반복을 주요 기법으로 쓴다는 측면에서 볼 때 반복(repetition)과 여담이 주요 서술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W.P.커(W.P. Ker)도 《베오울프》의 이러한 점을 그의

《서사시와 로맨스》(*Epic and Romance: Essays on Medieval Literature*, 2nd ed. London: Macmillan, 1908)에서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 시의 큰 즐거리는 시시한 반면 여담과 객담(supporting episodes)은 정말로 영웅적이고 장엄하다”고 말한다.<sup>18)</sup> 그는 더 나아가서 “[이 시에는] 이 시와는 상관없는 것이 중심에 있고 심각한 사실들이 외곽에 배치된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한다.<sup>19)</sup> 이러한 커(Ker)의 지적을 우리는 언뜻 들으면 아주 영뚱하게 들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지적을 어떻게 받아 들일 수 있을까? 그의 지적은 타당한가? 이러한 지적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하나의 예를 보기로 하자.

베오울프는 화룡(火龍)과 싸우기 위하여 부하 열 한명을 이끌고 화룡이 사는 곳으로 간다. 그는 이 전투의 상처로 죽게 돼 있다. 그는 화룡과의 싸움이 있기 전에 지금까지의 그의 삶을 회고하면서 긴 여담을 늘어 놓는다. 그는 일곱살에 할아버지인 흐레들(Hrethel)의 궁정에 간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할아버지의 장남인 헤레베알드(Herebeald)는 차남인 해드킨(Haethcyn)에 의해 살해된다. 흐레들에게는 살해자나 피살자 모두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수를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빠진다. 복수를 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흐레들은 죽으면서 자신의 소유물을 후손들에게 나눠준다. 해드킨도 그후 스웨덴인(Swedes)들과의 전투에서 전사한다. 그리고 베오울프는 히엘락(Hygelac)왕의 관대함과 그가 자신에게 하사한 토지와 거처에 대해 감사의 말을 한다. 이어서 그는 자신이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모두 잘 극복해왔기 때문에 이번 화룡과의 싸움에서도 용감히 싸울 것이며, 그의 부하들이 이 싸움을 지켜보고 증인이 돼 줄 것을 제의한다. 여기까지는 물론 큰 즐거리와는 밀접히 상관이 없는 여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여담이 “정말로 영웅적이고 장엄하다(truly heroic and maginificent)”<sup>20)</sup>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베오울프는 자신의 전의(戰意)를 가다듬는 가운데 자신은 “모든 사람들의 지배자인 운명이 우리 두 사람에게 정해 주신대로”(swa unc wyrd geteoð,/metod manna gehwæs[as wyrd, the measurer of each person, shall decree for us]) (2526-27) 싸울 것을 다짐한다. 여기서 앵글로 색슨말로 운명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wyrd*와 동격적 설명어(appositive gloss)로 쓰인 *metod*는 우리의 주목을 요한다. 이에 대해 엘제 폰 샤우베르트(Else von Schaubert)는 *metod*는 단지 운명(fate)이라는 앵글로 색슨의 뜻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프레데릭 클래버(Frederick Klaeber)와 그의 동조자들은 *metod*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sup>21)</sup> 후자의 경우에는 운명(*wyrd*)은 단지 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운명은 곧 신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위의 두 주장이 모두 타당성이 있다

18) Tripp, Jr., p. 67에서 재인용.

19) Tripp, Jr., p. 67에서 재인용.

20) Tripp, Jr., p. 67.

21) Robinson(1987), p. 99.

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이 시의 저자(기록자)는 기독교인이고 또한 이 시의 청자도 기독교인이기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말의 앵글로 색슨어의 의미보다는 기독교적인 의미가 더 호소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베오울프》 시인이 의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여담을 통하여 문화를 재해석함으로써 영문학의 가치관을 새로 정립하는 최초의 인물중 중의 하나가 된다.<sup>22)</sup> 이렇게 볼 때 객담이 줄거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에 나오는 베오울프의 영웅적인 행적은 그것이 이교도적인 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무목적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목적적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객담들이다. 이러한 객담을 통하여 베오울프는 그가 맞게 될 화룡과의 싸움이 목적론적(teleological)이 된다.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는 이교도적인 행위도 여담이라는 담론의 작용을 통하여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의도하는 바이고 또한 여담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V. 맺는 말

《베오울프》는 영문학 최고(最古)의 장시이며 또한 문학적으로도 가장 훌륭한 고대 서사시에 속한다. 그러나 이 시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러한 시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 시에서 쓰인 담론이 어떤 이념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언어는 가치 중립적이고 투명하기보다는 이념의 때가 묻은 이념의 도구이다. 이러한 사실은 《베오울프》에서 아주 잘 드러난다. 《베오울프》는 기독교화되기 전에 구전으로 전해 내려 오던 영웅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것이 기록으로 고정된 것은 영국이 기독교화된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이 시의 저자(기록자)는 기독교인이며 이 시의 청자 또한 기독교인이었다. 이 시에서는 기독교에서 차용하여 기독교 용어가 된 많은 앵글로 색슨의 토속어들이 쓰였다. 이런 용어들이 시에서 사용함으로써 이 시의 저자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 셈이다. 그 첫째는 앵글로 색슨어로 구전된 이야기를 담아내는 일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 시의 청자에게 기독교화된 의미로 읽히는 서사시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러한 작업은 시인과 청자 모두에게 유용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의미가 없는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청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오울프》는 하나의 여담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베오울프》에 나오는 어떤 영웅적인 행동일지라도 거기에는 기독교적인 목적론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목적론이란 구원의 달성을 뜻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

22) Tripp, Jr., p. 70.

은 어떤 행위도 단지 여담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는 수많은 여담의 집합체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여담이 이 시의 중심에 있다. 그 이유는 어떤 행동에 목적을 설정해 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이 여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시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고 여담이다. 여담이 없었다면 행동은 그저 아무 의미없는 행동으로 끝났을 것이다. 이 모두는 이 시의 작자가 의도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베오울프》는 기독교라는 이념의 산물이며 이런 이념을 구체화시켜 주는 것은 담론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시에서 기독교화되기 전의 앵글로색슨의 영웅시대의 실상을 보기보다는 이념화된 기독교의 담론으로 담겨진 굴절된 영웅들의 얘기를 들을 뿐이다. 이교도 사회의 실상은 그러므로 이런 담론 사이의 찢겨진 틈으로 빠져나오는 조각들일뿐, 이 시는 하나의 기독교이념으로 조작된 담론을 통하여 걸러진 베오울프라는 이교도 영웅의 이야기일 뿐이다.

## 《Abstract》

**The end of Action and the Beginning of the Word:  
Ideology and Discourse in *Beowulf***

**Chong-Ho Lee**

*Beowulf* is the oldest of the great long poems written in English. Thus, English literature virtually begins with *Beowulf*. What is intriguing about this oldest English poem, however, is not its historical importance; rather, how it fares in the midst of changing critical perspectives is the focus of this paper. In this respect, the way the dominant ideology and its operative discourse are inscribed in this text draws our attention. When we consider the fact that the basic material of *Beowulf* is pagan and the audience of this poem are Christians, the importance of the dominant ideology of Christianity in operation in this poem vis-à-vis paganism of the hero looms large as an important issue of critical interpretation. In this context, we also have to take into consideration how delicately and skillfully the poet negotiates the treacherous terrain.

It is immediately apparent how superbly the *Beowulf* poet balances the two contradictory ideologies: paganism of the hero and Christianity of the audience. The means of achieving this balancing act is what we might term the appositive word. In the appositive word are layered the original meaning of Anglo-Saxon etymology and the adopted meaning of Christianity. The Anglo-Saxon word *metod*, for instance, means creator to the pagans without any Christian implication. The same word means the Christian Creator to the Christian audience of the poem. By employing the apposed words in this manner, the *Beowulf* poet creatively filters the pagan elements through the Christian perspective. In other words, *Beowulf* is read differently by pagans and Christians at the same time. Why *Beowulf* is still intriguing in the latter part of the twentieth century is that it shows how the dominant ideology imposes its mind-set on the text of the poem through its discourse.